

구술성을 통한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 가능성 고찰
— 경판 25장본 〈홍부전〉을 중심으로

이지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

- * 이 논문은 2018 독서학회·국어교육학회·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공동학술대회 (2018.11.24.)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토론자 경북대학교 임재욱 선생님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I. 머리말
- II. 구술성과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의 관계
- III. <흥부전>의 구술성 양상과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 가능성
- IV.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을 위한 교육의 방향
- V. 맺음말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문식성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문식성을 단순히 읽고, 쓰고, 텍스트를 해독하는 능력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지양하고자¹⁾, 문식성을 사회적·정치적·상황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모든 사회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열린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Maybin, 2006; 손향숙, 2014). 신문식성 연구자들은 문식성은 위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문식성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1) 국어교육에서도 문식성(Literacy)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노명완, 2008)으로 정의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박영목(2008)은 문식성을 탈맥락적인 기능의 추상적 집합으로 보게 되면 교육체제나 사회체제의 실제적 특성과 괴리되는 부적합한 모형을 만들어 내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문식성은 단순히 어떤 특정 텍스트를 읽고 쓸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에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노명완·박영목, 2008: 42-43).

다. 문식성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위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Barton, 2007/2014). 문식성에 대한 열린 관점은 문식성을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발화 및 행위가 사회적 실천을 담지하고 있는 문식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식성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문식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식성의 무한한 확장 속에서도 문학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문학 문식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리고 특히 고전 문학에서도 문식성에 대한 발산적인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본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문식성에 대한 관점들이 넓어지고 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전문학은 여전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다. 자신이 속한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세계 속의 자신의 참모습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우리가 원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전달하는 은행저축식 교육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한 프레이리도 고전문학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듯이(Freire & Macedo, 1987/2014), 고전을 이해하고 고전에 담긴 다양한 맥락들을 알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정적인 지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전통으로 작용하는 문화(문화적 문식성)를 강조한 보수주의 이론가 허쉬 또한, 우리는 모르는 언어를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해주는 이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전통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Hirsh, 1988). 그런데 미국인이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화를 항목화하여 이에 대한 감식안을 갖추도록 할 때 작용하는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정전’이 되어 의도된 문식성을 배우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야기한다.²⁾ 이는 현재 고전문학 교육이 당면하고 있

2) 허쉬가 제시한 문화적 문식성의 목록은 나열식(cafeteria style)으로 교육 내용을 파편화시켰으며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허쉬는 문화적 문식성에 필요한 약 5,000여개의 명사, 구, 중요 기념일, 개념 등을 선정해서 목록화했지만 다양한 용어들을 두루 포괄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문화적 문식성 신장에 필요한 것은 축적

는 문제이기도 한데, 고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습자들이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적인 지식’들을 일방적·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고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현재의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지금과 다른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현대의 맥락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전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전을 향유함에 있어 필요한 고정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학습자가 갖출 수 있도록 하는가이다. 단순 지식의 전달 차원에서 고전문학 향유에 필요한 문식성들을 가르친다면, 문화에 대한 엘리트 관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고전문학 문식성의 현재적 위치를 반성적으로 살피고, 고전소설이 지니는 문식성의 다양한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학습자가 고전소설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문식성들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고전 교육 연구에서 고전의 특수성을 살린 문식성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조희정(2004, 2006)에 의해서였다.³⁾ 조희정(2004)은 ‘고전을 읽고 쓰는 능력, 나아가 고전이 운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활용 능력’을 고전 문식성으로 개념화하고, 고전 문식성에서는 학습독자가 고전 텍스트와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를 조회하고 되돌아보는 평가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후속 연구인 조희정(2006)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전 문식성의 위계화를 초등·중등 국어 과목 내 고전 교육과 심화 과목으로서의 고전 교육으로 나누어 살폈다. 조희정의 연구는 고전 문식성의 개념을

된 문화적 산물이나 사실을 명시하는 어휘 목록 그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용어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파했다(김혜진, 2017: 12).

3) 고전소설을 문식성의 차원에서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은 고전소설 작품의 매체 변용과 관련하여 ‘문화적 문식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박은진, 2015; 서보영, 2014; 서유경, 2009; 황혜진, 2005, 2016).

새롭게 구안하고, 그 범위를 고전시가, 고전소설, 한문단편, 수필 등 다양한 고전산문 제재를 모두 포괄하는 차원으로 살펴 고전 문식성을 일반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이에 대하여 박유진(2013)은 모든 하위 장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고전 문식성에 접근하는 것은 고전문학의 하위 갈래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드러낼 수 없음에 주목하여, 그 범위를 고전 전반에 통용되는 문식성 범주가 아닌 고전소설 문식성으로 한정하여 고전소설 문식성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재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박유진(2013)은 고전소설 문식성은 고전소설의 이해와 감상의 기본적인 능력을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고전소설 문식성을 ‘현대소설 및 고전시가와는 차별되는 차이를 운용하는 능력’, 즉 ‘고전소설을 운용하는 능력’으로 재개념화하였으며, 이재기(2009)와 조희정(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고전소설 문식성의 단계를 고전소설 수용의 과정과 연계하여 기능적 문식성, 장르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자발적 문식성으로 세분화하였다. 한편, 고전소설 문식성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인 류수열(2018)에서는 고전문학 향유의 국면을 설정하여, 각각의 국면에서 어떠한 문식성이 요구되는가를 살피고, 고전문학 향유에 필요한 문식성을 ‘전고 리터러시-해석 리터러시-스토리 리터러시-주제 리터러시-평가 리터러시-성찰 리터러시’로 세분화하였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고전소설 문식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 고전소설 문식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연구들이 각각의 문식성들을 쉬운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으로 단계화·위계화·절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쉬운 단계의 문식성이 해결되어야 그다음 수준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비록 고전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종의 ‘고정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학습자가 알아야 할 지식들 사이의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문식성 간의 관계가 정말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구술성’⁴⁾이 판소리계 소설을 향유함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들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구술성이라는 장르적 특징을 지니는 판소리계 소설이 고전소설 향유에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 요소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나타내는지 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⁵⁾

본 연구가 고전소설의 하위 유형 가운데 판소리계 소설에 주목한 이유는 판소리계 소설은 다른 고전소설과는 차별되는 특수한 장르적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연행되던 판소리를 소설화한 것으로, 작품 자체에 구술성과 기록성의 요소를 겸비하고 있는 고전소설의 하위 장르이다. 낭독의 방식에 의해 연행되어 오던 국문소설⁶⁾과 비교해보면, 낭독된 고전소설에서는 작품 내재적인 차원에서의 구술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
- 4) 구술성(orality)은 매체라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매우 유효한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의 학습자들이 처한 세계는 영상과 결합한 새로운 구술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의 학습자들에게는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것보다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눈으로 읽고 쓰는 기존의 문학 감상의 방식은 더 이상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문학 감상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우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구술문화의 시대에서 문자문화의 시대로 이동하였던 것이, 현재 다시 구술문화의 시대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구술성은 앞으로 목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침들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5) 고전 문식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소박한 상황에서, 고전소설 문식성의 개념을 세우고 그 범주를 유형화한 기존의 논의들은 매우 유의미하다. 본 연구는 고전(문학 혹은 소설) 문식성에 대한 기존 논의의 흐름 속에서, 고전소설 하위 유형마다 각각의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고전소설 전반의 문식성으로 쉽게 확대하여 일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고전소설 문식성에 대한 일반화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전소설의 하위 유형에 대한 문식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귀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다.
 - 6) 각종 고전 문헌 자료에서 낭독되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고전국문소설에는 〈소대성전〉, 〈숙향전〉, 〈창선감의록〉, 〈설인귀전〉 외에도 다양한 작품이 있으며, 읽기 방식은 전문적인 낭독가에 의해 감상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낭독하며 감상하는 경우, 홀로 크게 읽으며 감상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배수찬, 2011).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행의 방식, 향유의 방식’ 차원에서 구술성을 확보하였던 여타 고전국문소설들과 달리,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되는 과정을 통해 작품 자체에 구술성과 문자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판소리계 소설도 다른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낭독의 방식으로 향유되어 구술성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판소리의 영향으로 작품 내에 구술성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일찍이 구술성과 기술성 모두를 그 특징으로 하는 장르적 속성에 주목한 김현주(1991)는 판소리 문학은 말과 글이 공존하며 역동하는 문학형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말과 글이 상호연관성과 이본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구술성과 기술성의 방식을 분석하고 그 장르적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 또한, 판소리 사설에 올바르게 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글이 아니라 말이라는 구현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판소리라는 연행현장의 문학적 채록물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김현주, 1991: 129)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여타 고전소설들과 변별되는 판소리계 소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문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구술성(orality)’의 접근으로 가능하며,⁷⁾ 판소리계 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들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가정한다.

정리하면, 본고는 고전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구술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판소리계 소설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기록문학인 판소리계 소설에 담겨 있는 구술성 양상을 분석하고,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적 특징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문식성의 양상들을 탐색해 볼 것이다. 학습자들은 구술성을 내포하는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문식성

7)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구술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김현주, 1991; 김종철, 2001; 이현주, 2013; 이유진, 2014).

을 갖추므로써, 판소리계 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들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⁸⁾

2. 연구대상

본 연구가 구술성을 매개로 판소리계 소설 향유에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제재로 <홍부전>을 선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홍부전>은 <춘향전>과 함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전소설 제재 가운데 최다 수록된 작품이다. 그러나 <홍부전>은 중학 국어와 고등 국어의 갈래별 대표 작품이 동시에 채택되지 않고 차이를 보이는 다른 고전소설 제재들과 달리, 위계가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고등 공통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홍부전>이 중·고등 국어의 제재로 모두 채택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중·고등의 연계적 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⁹⁾ 다만, 중·고등의 학습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

8) 일반적으로 장르적 문식성이 ‘고전소설의 원리를 운용하는 능력을 특화시키는 것’(박유진, 2013), ‘작품이 속한 갈래와 표현 관습 등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염은열, 2001) 등으로 정의됨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문식성은 ‘판소리계 소설의 표현적 관습, 관념 등의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은 다른 국문소설들과 달리 구술성이라는 장르적 특수성을 지닌 유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할 구술성의 양상들이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문식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9)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본 제재와 보조 제재를 모두 고려할 때, 중등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최다 수록된 고전산문 제재는 <홍부전> 및 <홍보가>로, 판소리 <홍보가>는 중학 국어(3회), 고등 문학(6회), 고전소설 <홍부전>은 중학 국어(3회), 고등 국어(5회), 고등 문학(3회) 수록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판소리 <홍보가>는 고등 문학(9회), 고전소설 <홍부전>은 고등 국어(2회), 고등 문학(1회) 수록되었는데, <홍보가>가 판소리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판소리를 대표하는 제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중학 국어 수준에서는 판소리가, 고등 국어 수준에서는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심화 수준인 고등 문학에서는 판소리와 고전소

여 판소리 <홍보가>는 중학교 수준에, 고전소설 <홍부전>은 고등학교 수준의 제재로 수록되어 있다.¹⁰⁾ 이는 판소리계 소설이 판소리에서 소설로의 발전 과정을 반영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판소리계소설의 기원이 되는 판소리 <홍보가>를 판소리계 소설이 아닌 판소리 창본의 형태로 먼저 접한 후, 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설화된 <홍부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계적 설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홍부전>은 같은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과 달리,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적 장르적 특징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그 방식이 작품의 전체 의미 차원으로 확장되기보다는 표현 방식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¹¹⁾

30여 종이 넘는 <홍부전>의 다양한 이본 가운데,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

설 유형이 동시에 수록되었다. 한편, <홍부전>과 함께 최다 수록 제재인 <춘향전>은 2009 개정 중등 국어 교과서의 제재로는 실리지 않았다. <춘향전> 및 <춘향가>는 고등 수준의 제재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홍부전>의 연계적 지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조희정, 2016, 2020; 황윤정, 2020).

- 10) 중학 국어 1 천재(김)<홍보가>/고등 국어 2 천재(김)<박홍보전>, <홍부전>은 중·고등 국어 제재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고전소설 작품이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중학 국어에 실린 <홍보가>에서는 비유하기(직유, 은유, 의인), 강조하기(과장, 반복), 변화 주기 등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이 제시되었으나, 고등 국어에 실린 <박홍보전>에서는 이를 확장하는 활동들이 제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판소리로 불리던 <홍보가>가 문자로 기록된 소설 <홍부전>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는 하고 있으나, 주로 배경과 사건 정리, 시점과 서술자 이해, 줄거리 재구성 차원에서만 학습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 11)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적인 장르적 특징을 강조하기보다는 인물 간,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과 주제 의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며, <홍부전>은 <춘향전>에 비하여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살리고자 하였음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 국어 14종, 고등 국어 11종 교과서의 사례(고등 국어 2 교학사(김), 고등 국어 2 창비(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홍부전>이 지니는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강단 풍자와 해학의 표현 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홍부전>을 구술적 속성을 지닌 작품으로 파악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홍부전>을 구술성과 기록성의 동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방증한다.

은 경판 25장본 <홍부전>(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 2003)이다. 판소리를 근간으로 형성된 경판본 <홍부전>은 현존하는 가장 오랜 판본이자 구술적 언어 사용의 특징이 부각되는 이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았다.

II. 구술성과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의 관계

1.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 가능성

구술성이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앞서, 고전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문식성의 층위들을 항목화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고전소설 문식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고전소설 향유에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들을 위계화 및 단계화하였다. 조희정(2006)에 따르면 고전의 차이를 운용하는 능력이란 고전 텍스트를 훈고적 지식을 도구로 활용하여 읽기를 수행하는 것, 고전문학이 현대문학과 갈래상 다르다는 인식을 통해 고전 텍스트를 재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것, 꼼꼼히 읽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맥락적 지식 즉, 국문학사적 지식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박유진(2013)은 조희정의 이러한 능력의 구분을 참고하고, 고전소설 수용의 과정과 연계하여 고전소설 문식성의 단계를 기능적 문식성, 장르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의 지식·기능(인지적) 차원과 이재기(2009)의 논의를 참고해 고전소설을 즐겁게 향유하는 자발적 문식성이라는 태도 차원으로 각각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자발적 문식성까지의 위계와 순서가 있다(박유진, 2013; 20)고 전제하였다.

〈표 1〉 고전소설 문식성의 층위 구분 (박유진, 2013)

지식·기능	기능적 문식성	• 훈고적 지식을 도구로 활용하여 고전소설 텍스트 읽기를 수행하는 것 • 관습적 문식성(이재기, 2009):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장르적 문식성	• 작품이 속한 갈래와 표현 관습 등에 대한 이해(염은열, 2001) • 고전소설에 작용하는 원리를 운용하는 능력을 특화 • 현대문학,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의 차이를 인식하는 능력 • 고전서사를 타장르와 구별하여 파악하는 능력
	문화적 문식성	• 고전소설 속 문화를 습득하고 경험하는 능력 •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맥락적·국문학사적 지식을 동원하는 것 1) 공동체가 축적한 문화 유산의 습득 및 경험 2) 공동체가 형성한 중요한 신념·지식·사건·가치 등의 공유 및 경험 3)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 경험(이재기, 2009)
	비판적 문식성	• 고전소설에서 말하는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사유하는 능력 • 과거와 현대의 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전소설 해석의 비판적 거리
태도	자발적 문식성	• 고전소설 문식성의 정서적 측면 • 고전소설의 자발적인 향유

한편, 류수열(2018)은 고전문학 향유의 국면을 설정하여, 각각의 국면에서 어떠한 문식성이 요구되는가를 살피고, 문식성들 간의 위계적 질서를 세웠다(류수열, 2018: 8-9). ‘전고 리터러시-해석 리터러시-스토리 리터러시-주제 리터러시-평가 리터러시-성찰 리터러시’로 위계화하여 학습자의 〈토끼전〉 향유 양상을 분석한 점이 그러하다. 이때 전고 리터러시에서 성찰 리터러시로 나아갈수록 내용의 성격은 정보→지식→지혜로, 사고의 성격은 수렴에서 발산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표 2〉 고전소설 향유 리터러시의 위계화 (류수열, 2018)

문식성 종류	특성	내용의 성격	사고의 성격
전고 리터러시	• 신화적,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식성 • 개별적인 어휘나 구절 이해	정보	수렴적 ↑

스토리 리터러시	• 서사적 전개(전체적 줄거리)의 이해	지식	↓ 발산적
해석 리터러시	• 문맥을 고려한 해석 • 대목에서 인물들이나 서술자 발화의 의미, 인물이 구사하는 말하기 전략을 해석하는 문식성 • 현대어로 풀이하는 수준을 넘어선 추론을 동반해야 함		
주제 리터러시	• 주제 분석 • 작품의 세부로부터 독자의 추상적 과정을 거쳐 발견되는 것		
평가 리터러시	•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하거나 인물의 성격을 평가하는 것		
성찰 리터러시	• 고전문학을 통한 독자의 삶 반성, 그리고 정신적 성장 도모	지혜	

연구자들마다 문식성의 위계를 설정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텍스트 차원에서 태도 차원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고전소설 문식성의 층위를 나눈 연구들은 각각의 문식성들을 쉬운 수준에서 어려운 수준으로 위계화하는데, 이는 쉬운 단계의 문식성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수준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조희정(2006), 박유진(2015), 류수열(2018)은 고전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의 요소들을 구분하여 살폈으나, 문식성 간의 관계가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지자라는 전제에 대한 고민이 병행된다면, 고전소설 문식성에 대한 논의의 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전소설 문식성을 구체적인 교육의 국면에 적용해본다면, 고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작품의 줄거리에 대한 이해,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실제로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을 향유할 때, 어휘들만 따로 모아 이해한 다음 줄거리 이해로 나아가지 않는다. 학습자는 고전소설의 어휘를 습득할 때 어휘에 내재된 문화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을 것이며, 어휘를 이해하는 동시에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으며, 고전소설의 특정 장르와도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고전소설의 향유 과정이 일직선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고전소설의 문식성들은 개별적이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왜냐하면 고전소설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문식성의 내용들을 위계화하여 단계적인 교육 내용으로 마련한다면, 이는 고전문학이 지니는 전달식 교육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고전소설을 향유하기 위한 방법 자체를 모르는 학습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오히려 그 가이드라인이 학습자들에게는 고전소설을 감상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문학 교육 및 고전소설 교육 분야에서 문식성을 위계화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어휘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기능적 문식성), 작품이 속한 갈래와 표현 관습을 이해하는 능력(장르적 문식성), 작품 속에 드러난 문화를 습득하고 경험하는 능력(문화적 문식성),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주제적으로 해석 및 사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비판적 문식성), 작품을 자발적으로 향유하는 태도 및 능력(자발적 문식성)을 포함함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때 구술성은 판소리계 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들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12) 본 연구는 류수열(2018)이 고전소설 향유 문식성을 위계화한 항목 가운데, 작품의 개별적 어휘나 구절을 이해하는 능력인 ‘전고 리터러시’는 ‘기능적 문식성’에, 작품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능력인 ‘스토리 리터러시’,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인 ‘주제 리터러시’, 인물이나 서술자 발화의 의미나 작품의 문맥을 해석하는 능력인 ‘해석 리터러시’, 인물의 성격이나 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리터러시’는 작품에서 말하는 의미를 주제적으로 해석하고 사유하는 ‘비판적 문식성’에, 마지막으로 작품을 통해 독자의 삶을 반성하고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는 ‘성찰 리터러시’는 ‘자발적 문식성’에 포함 및 대응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적 문식성’, ‘장르적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자발적 문식성’으로 나누어, 〈홍부전〉의 구술성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문식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술하겠으나, 판소리계 소설에는 구술성을 통해 수사, 표현 차원에서 관념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식성의 요소들이 나타난다. 판소리계 소설의 주요 특성인 구술성은 특정 주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습적인 어휘와 표현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관습적 어휘에 대한 접근을 친숙하게 하며, 특정 인물 혹은 사물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고정적 수식 표현 및 대비적 형용구를 통해 인물이나 사물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의 해석을 유발하며, 운율감을 형성하여 특정 인물 혹은 상황을 회화화함으로써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며, 구술문화의 속성을 반영한 전통적 가치관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편집자적 논평 등과 같은 구술적 특성을 통해 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작품과 거리를 두고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직접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적인 장르적 속성은 독자가 고전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구술성(orality)의 개념¹³⁾과 특징

윌터 옹(Walter J. Ong)은 오늘날 우리는 문자 텍스트의 표현과 이해가 근대 언어학적 관점의 기호로만 이룩된다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그는 ‘구술성(口述性, orality)’과 ‘문자성(文字性, literacy)’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구술문화에서의 사고와 언어표현은 어떠한지, 문자에 익숙한 사고와 표현이 구술성으로부터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사이에 있는 정신구조의 차이가

13) 이 장에서 사용하는 기술성(literacy)의 개념은 문식성(Literacy)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기술성과 문식성의 역어가 literacy로 동일하지만, 전자는 보다 문자성의 개념(문자로 기술하는 사고 활동)에 가까운 것인 반면, 후자는 문자 텍스트를 잘 읽어내는 능력의 개념에 가깝다.

지 밝혀내고자 한다.

구술성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월터 옹의 ‘구술성’과 ‘문자성’의 용어를 ‘구술성’과 ‘기록성’으로 재명명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문자성’이라 하지 않고 ‘기록성’이라 명명한 것은 문자로 기술하는 사고 활동 및 언어 활동을 강조하기 위함(김종철, 1999: 8)임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재명명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 적용하면, 판소리의 구비문학적 속성은 ‘구술성’에, 이와 대비되는 기록문학적 속성은 ‘기록성’에 각각 대응될 것이다.

〈표 3〉 구술성과 기록성의 개념 및 특징

구술성 (or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을 통한 발화 (언어에 대한 원초적 감각)• 말의 순간성, 일회성 → 기억 장치 필요• 기억하기 쉬운 형태(pattern)에 입각한 사고 (Ong, 1982: 58) → 반복적 정형구의 활용• 발신자: 수신자 = 화자: 청자 (양방향적) → 말건넌의 어투 등의 사용
기록성 (liter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글)을 통한 진술 방식 (문자에 의한 후천적 감각)• 텍스트의 고정성 확보, 사고의 재구조화• 문법 의식의 고조• 통사구조에 대한 감각 증대• 구술성 위에서 성립 가능

구술성의 개념과 특징은 위와 같이 기록성의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데, 구술성은 단순히 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글이 없던 시대에 인류가 말로 의사소통할 때 갖고 있던 심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인식론적 사유체계, 표현적 특징으로서 담화적 스타일이나 서사 패턴, 그리고 모티프와 같은 주제론적 내용 등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현주, 2013: 116-117)이라 할 수 있으며, 기록성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문학 속에서 구술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월터 옹이 제시한 필사 문자나 활자 문자에 입각한 사고나 표현과는 대조되는,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나 표현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Ong, 1982/2006: 61-96).

- ① 종속적이거나보다는 첨가적(나열)이다.
- ② 분석적이거나보다는 집합적(전체화)이다.
(병렬적 단어, 구, 절/대비적인 단어, 구, 절/형용구)
- ③ 장황하거나 '다변적'이다.(청중을 고려한 되풀이)
- ④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다.(정신)
- ⑤ 인간의 생활세계에 밀착된다.
- ⑥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다.
- ⑦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또는 참여적이다.
- ⑧ 항상성이 있다. (고풍스러운 어형 혹은 어의를 가진 단어의 전승)
- ⑨ 추상적이거나보다는 상황 의존적이다.

이러한 구술문화의 특징을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성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성은 공식구적 표현, 장황한 수사, 장면의 극대화, 부분의 독자성, 다중 시점에 입각한 서술, 일탈을 통한 골계의 추구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판소리계 소설의 기록성은 이와 반대로 단일한 체계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부분과 전체의 비례적 관계의 형성, 일관된 서술 관점, 작가와 독자의 분리 등(김종철, 1999: 8)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위에 제시된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나 표현의 특징을 표현(혹은 수사), 사고(혹은 관념)의 상위 범주로 유형화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구술성의 특징 유형화

표현	① 종속적이거나보다는 첨가적(나열)이다.
	② 분석적이거나보다는 집합적(전체화)이다.
	③ 장황하거나 '다변적'이다. (독자(청중) 고려)
	⑥ 논쟁적인 어조가 강하다.
	⑦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또는 참여적이다. (독자(청중) 고려)
	⑧ 항상성이 있다.

사고	④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다.
	⑤ 인간의 생활세계에 밀착된다.
	⑨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상황의존적이다.

이처럼 구술성은 표현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차원에서도 그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구술문화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습득된 경험들이 유산으로 남겨져 정신을 이루는데,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특징인 구술성을 통해 작품이 어떠한 세계관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내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표현(수사)와 사고(관념)로 범주화된 기준을 중심으로, 각 층위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들을 중심으로 <홍부전>에 나타나는 구술성의 양상을 확인하고, 구술성이 다양한 문식성들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홍부전>의 구술성 양상과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 가능성

앞서 판소리계 소설은 여타 고전국문소설들과 달리, 작품 내재적인 차원에서 구술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연행되던 판소리가 문자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판소리의 구술성이 소설로 이행됨으로써, 판소리계 소설에는 구술성과 기록성이 혼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판소리와 비교해보았을 때 구술성의 측면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작자의 의도적인 구술성의 강화 장치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장성을 바탕으로 하는 판소리의 ‘창자와 청자’의 직접적인 관계는 판소리계 소설로 기록되면서 ‘작자와 독자’의 간접적인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

고, 이에 작자는 독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구술적인 특성을 소설 기술에 적용하려는 노력(조용호, 2001: 235)을 한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의 등장 배경과 구술성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경판 25장본 <홍부전>의 구술성 양상을 표현과 사고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구술성이 고전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¹⁴⁾

1. 표현 차원의 구술성

1) 텍스트 자체적 구술성

(1) 유사한 어구의 반복 및 나열을 통한 장황한 서술

(가) 놀부 심스를 붙작시면 초상난 디 춤추기 불붓는 디 부치질헝기 희산흔 디
기닭 잡기 장의 가면 억미 흥정헝기 집의서 못쓸 노릇헝기 우는 으히 불기
치기 갓난 으히 똥먹이기 무죄흔 놈 썸치기 빗갑식 계집 썸기 늙은 영감 덜
미 잡기 으히 빈 계집 빗치기 우물 밋티 똥누기 오려논의 물터눅기 잣친밥
의 돌퍼붓기 찍는 곡식 삭즈르기 논두렁의 구멍 쏘기 호박의 말쑥밧기 곱
장이 업허눅코 발쑤치로 탕탕 치기 심스가 모과나모의 으들이라 이 놈의
심술은 이러헝되 집은 부지라 (제1장, 11면)

(나) 칠년디한 가문 놀의 비오기 기다리듯 구년지슈 장마진 디 벗느기 기다리
듯 제갈량 칠성단의 동남풍 기다리듯 강득공 위슈상의 시절 기다리듯 만
니 전장의 승전헝기 기다리듯 어린 으히 경풍의 의원 기다리듯 독숙공방
의 낭군 기다리듯 춘향이 득게 되어 니도령 기다리듯 과년흔 노쳐녀 석집
가기 기다리듯 삼십 너른 노도령 장가가기 기다리듯 장둥의 드러가서 과
거헝기 기다리듯 세끼 굴머 누은 즈식 흥부 오기 기다린다 (제4장, 15면)

(다) 박 흥 통을 썸노코 낭뉘 켜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당괴여 듀소 톱질이야

14) 본문에 제시된 인용문은 김진영 외 편(2003)에서 발췌하였다.

(…) 흥부 말이 그러하면 저 통의 밥이 드러느 툇 밥식 하고 쏘 흥 통을 탄다 슬근슬근 툇질이야 우리 가난하기 일읍의 유명하미 듀야 설워하더니 부지머령 고딕천냥 일조의 어더스니 엇지 아니 조홀소냐 슬근슬근 툇질이야 어서 툇식 툇질이야 툇 툇 노호니 온갖 세간이 드러스되 즈개함농 반다지 농장봉장 제두두 쇠금들의 삼층장 계즈다리 옷거리 쌍농 그런 빚집고 비 농두머리 장복비 낫초디 광명두리 요강 투구 버려노코 선단 니불 티단 요며 원앙금침 잣버기를 쏘하노코 스랑 괴물 불작시면 농목쾌상 버르집 화류죽장 각계수리 농연 벼루 잉무연적 버려노코 (…) 함박 족박 이남박향으리 웅박이 동체 깎체 어렵이 침척독 장독 가마 승고 등물이 꾸역꾸역 나오니 엇지 아니 조홀손가 (제9~10장, 20~21면)

(라) 놀부의 박타기 마당 (제13~25장, 24~39면)

(가)는 놀부의 심술들이 ‘-하기’라는 동일한 구조 하에 나열되고 있는 대목으로, 놀부의 심술긋은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추가됨으로써 놀부의 악행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반복과 나열은 구술성이 지닌 대표적인 특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구술 현장에서 청중들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에 따라 서술은 종속적인 관계를 보이기보다는 첨가적이고 나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인물 행위의 나열은 인물의 특성과 성격을 부각한다.

(나)는 흥부의 아내가 매품을 팔러 간 흥부를 기다리는 대목으로, (가)와 유사하게 ‘-듯’이라는 동일한 구조 하에 흥부를 기다리는 흥부 아내의 행위들이 나열되고 있다. 이러한 반복과 나열은 흥부 가족의 극심한 굶주림과 먹거리에 대한 가족의 절실한 요구를 강조하며, 흥부 가족의 빈곤한 상황 및 처지를 부각한다.

(다)는 흥부와 흥부의 아내가 박을 타며 노래를 하는 대목으로, 해당 대목에는 ‘슬근슬근 툇질이야’라는 어구가 반복되며, 박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무한하게 나열된다. 여기서 하나의 박을 탈 때마다 등장하는 ‘슬근슬근 톱질 이야’라는 어구는 무한히 나열되는 사물들 사이에 새로운 박을 탐을 나타내는 일종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장황함에 규칙을 부여하는 담화 표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라)는 놀부의 박타기 마당으로, 경관 25장본 <흥부전>에는 놀부가 징치당하는 대목이 매우 부각되어 나타난다. 이는 흥부와 놀부의 박의 개수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흥부의 박은 4개인 반면 놀부의 박은 13개로 차이가 난다. 놀부의 박에서는 개약고장이, 노승, 상제, 무당, 등짐꾼, 초란이, 양반, 사당거사, 월짜, 소경, 장비, 배설물이 차례대로 나오며, 이들은 각각 놀부의 재산을 순차적으로 빼앗아가 놀부를 패가망신하게 만든다. 하나의 박이 열릴 때마다, 놀부는 점점 큰 액수의 돈을 빼앗기게 되며, 이렇게 돈을 빼앗기는 행위들이 나열됨에 따라 놀부의 패가망신은 희극화된다. 이렇게 무한한 나열과 확장이라는 구술성의 방식을 통해 생성되는 놀부의 재산 탕진과 마당을 가득 채운 난장의 장면은 ‘장면의 극대화’라는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부각할 뿐만 아니라, 후술하겠으나 민중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같은 맥락에서의 특정 어휘나 어구의 반복은 그 자체가 어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물이나 사건이 나열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놀부의 악행, 놀부의 패가망신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어구 및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은 나열되는 어휘 및 어구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어휘 하나하나의 뜻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어휘의 의미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동일한 맥락을 형성하여 해당 어휘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인가를 독자가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독자의 능동성을 유발하며, 이를 통해 독자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 ‘관습적 문식성’(이재기, 2009)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어휘나 어구의 반복은 단순히 어휘가 제시되는 맥락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물이 처한 상황 및 인물의 성격,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 등을 함께 드러낸다. 특정 맥락에서의 어휘 및 어구의 반복은 강조의 효과를 낳는데, 이는 구술성과 연관될 수 있는 문식성이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항목에서도 드러난다.

(2) 대비적 형용구를 통한 어휘의 의미 유추

(가) 화설 경상 전나 냥도 지경의서 스는 스름이 이스니 놀부는 형이오 흥부는 아이라 놀부 심식 무거혀여 부모 심전 분직전답을 홀노 츠지히고 흥부 갖튼 어진 동상을 구박혀여 건넌산 언덕 밋히 닉셔리고 나가며 조롱하고 드러가며 비양혀니 엇지 아니 무지혀리 (제1장, 11면)

(나) 놀부 심스를 볼작시면 초상난 디 춤츰기 불뵈는 디 부치질헝기 ~ 이 놈의 심술은 이러혀되 집은 부지라 (제1장, 11면)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현의 구성 요소들은 흠어져있기보다는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병렬적인 단어나 구나 절, 대비적인 단어나 구나 절, 형용구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군인’보다는 ‘용맹한 군인’으로, ‘공주’보다는 ‘아름다운 공주’로 나타내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은 구술문화의 특징적인 사고 과정에서 생겨난 정형구화한 본질적 요소들의 잔존(Ong, 1982/2006: 65)으로, 이러한 형용구적 정형구는 ‘지모가 풍부한 오디세우스’와 같이 의무적으로 고정되기도 하였다. <흥부전>에서도 이러한 구술적인 특성들이 발견되는데, (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놀부와 흥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놀부를 나타낼 때에는 ‘놀부 심식’를, 흥부를 나타낼 때에는 ‘어진 동상’이라는 형용구를 사용함으로써 대비적인 두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부각시킴을 알 수 있다. 이는 놀부의 성격을 나타내는 (나)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작품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 즉, 흥부 묘사와 놀부 묘사가 ‘착한 흥부’, ‘어진 흥부’, ‘심사가 나쁜 놀부’, ‘심술이

가득한 놀부'로 정형화되어 있어, 독자(청중)들은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작품을 읽어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특정 인물을 수식하는 정형화된 어휘 표현들은 독자로 하여금 인물들을 묘사하는 각각의 어휘들을 대응시켜 봄으로써 어휘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게 한다. '착한'과 '어진'의 대응, '심사가 나쁜'과 '심술이 가득한'의 대응과 같이, 모두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기 때문에, 독자가 인물을 묘사하는 특정 어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소설 전반에서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정형화된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어휘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비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독자가 기능적 차원의 문식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독자 및 청자 지향적 구술성

(1) 말 건넌을 통한 독자의 참여 활성화

(가) 놀부놈의 거동 보소 동지 셋달부터 제비를 기다린다 그물 막디 두러메고 제비를 몰느 갈 제 흐 곳 바라보니 흐 즘성이 씨 드러오니 놀부놈이 보고 제비 인제 온다 흐고 보니 툇빅산 갈가마귀 츄돌도 돌도 바히 못 어더먹고 두러 청턴의 낯히 씨 갈곡길곡 울고 가니 놀부 눈을 멀거게 쓰고 보다가 홀 일 업서 동니집으로 다니면서 제비를 제 집으로 모라드리되 제비가 아니 온다 그달 저달 다 지니고 삼월 삼일 다다르니 강남셔 낙온 제비 빗 집을 츄즈려흐고 오락가락 넘놀 적의 놀부 스면의 제비 집을 지어노코 제비를 드리모니 그 등 팔즈스오노은 제비 흐느히 놀부 집의 흙을 무려 집을 짓고 알룰 느하 안으랴홀 제 놀부놈이 듀아로 제비집 압히 디령호여 각금각금 만져 본즉 알이다 골고 다만 흐느홀 씨엿는지라 날기 공부 힘쓰랴홀 제 굴형 비암 아니 오니 놀부 민망 답답호여 세 손으로 제비삿기를 잡으 느려 두 발목을 작근 부터더리고 제가 삼작 놀느 이룬 말이 가련하디 이 제비아 흐고 조괴겹질를 어더 찬찬 동혀 빗놈의 닛돌 감듯 삼층 얼니 연돌 감듯 호여

(가)는 흥부에게 부자가 된 유래를 들은 놀부가 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동지섣달부터 제비를 기다리고,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트리 는 모양을 묘사한 부분으로, 여기에서 ‘거동 보소’와 같은 표현은 구연 현장에서 화자가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관심을 유도하는 발화와 같다. 즉, 판 소리 공연에서 창자에 의해 행해지는 말 건넌의 어투와 유사한 것이다. 이는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작자의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적 장치는 독자의 시선을 서술자가 의도하는 곳으로 옮김으로써, 독자를 텍스트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끈다. ‘놀부놈의 거동 보소’라는 발화에 의해 독자는 해당 어구를 읽고 상황하게 나열되는 놀부의 못된 행태들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이렇듯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구술적인 장치들은 끊임없이 독자들을 텍스트로 불러들인다. 이는 기록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술성만이 지니는 특징으로, 이러한 구술적 장치는 태도적 차원에서 독자의 작품에의 진입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점에서 독자가 태도 차원의 문식성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술성을 매개로 한 서술자와 독자의 대화를 통해 고전소설에의 자연스러운 진입이 익숙해진다면, 궁극적으로 독자 스스로 고전소설을 자발적으로 향유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 편집자적 논평을 통한 독자의 몰입과 관점 정립

(가) 화설 경상 전나 냥도 지경의셔 스는 스름이 이스니 놀부는 형이오 흥부는 아이라 놀부 심식 무거호여 부모 심전 분치전답을 홀도 츠지호고 흥부 갖튼 어진 동심을 구박호여 건넌산 언덕 밋히 다퉈리고 나가며 조롱호고 드러가며 비양호니 엇지 아니 무지호리 (제1장, 11면, 밑줄은 인용자)

(나) 삼월 삼일 다다르니 소상강 제기러기 가노라 하직호고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희 제 오디랑의 안졌다가 비리비저 넘놀면서 흥부를 보고 반겨
 라고 조흠 호즈 지저피니 흥뷔 제비를 보고 경계하는 말이 고디광실 만컨
 마는 슈슈드집의 와서 네 집을 지엇다가 오륙월 장마의 털석 문허지면 그
 아니 낭픽오냐 제비 듯지 아니하고 흠을 무려 집을 짓고 알을 안하신태 후
 의 날기 공부 힘쓸 썬의 의외 디망이 드러와서 제비 샷기를 몰수이 먹으니
 흥뷔 째작 놀노는 말이 흥악한다 저 즘싱아 고량도 만컨마는 무죄흔 저
 샷기를 몰식하니 악착한다 제비 샷기 디성황데 나 계시고 불식고량 스라나
 니 인간의 희가 업고 뱃 듀인을 츠즈오니 제 쏘이 유정하되 제 샷기를 이제
 다 참척을 보니 엇지 아니 불상하리 저 즘싱아 픽공의 용천검이 적혈이 비
 등희 제 빅데의 녕흔인가 신장도 장홀시고 영슈광약 너른 썬의 슈롱 장의
 히를 닦던 풍스망의 디망인가 머리로 흥악한다 (제7장, 17~18면)

(다) 이러홀 둘 아라시면 동냥홀 박으지노 가지고 나오더면 조흠 변한다 하고
썬썬흔 늬이 쳐즈를 잇글고 흥부를 츠즈가니라 (제25장, 39면)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나는 편집자적 논평은 독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구
 술문화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편집자적 논평에는 서술자의 시
 각, 즉 서술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가)처럼 놀부의 성격을 ‘무지
 하다’로, (나)처럼 제비를 ‘엇지 아니 불상하리’와 같이, 제비를 공격하는 뱀
 을 ‘흥악한다’로, (다)처럼 놀부를 ‘썬썬한다’로 평가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독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편집자적 논평은 독자가 주어진 대상
 혹은 상황을 특정한 시각, 시선 혹은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며, 독자는
 서술자의 이러한 논평에 담긴 의도에 따라 작품을 읽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독자의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적이입적이며 참여적인 구술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편집자적 논평은 인물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을 유추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거리두기를 통해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판본 〈흥부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다양한 이본

에 나타나는 인물 혹은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살핀다면, 그 가운데 독자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독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독자가 자연스럽게 서술자의 의식 및 의도를 파악한 후, 다양한 관점들의 비교를 통해 작품 속의 상황, 인물의 태도 등에 대한 해석 관점을 선택하거나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전소설에서 말하는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사유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비판적 문식성’¹⁵⁾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사고 차원의 구술성

1) 전통적 가치관과 민중적 세계관의 표현

(가) 놀부도 홀일업스미 마지못하여 마즈 타고 보니 혼 장췌 나오되 얼굴은 검고 구레나로를 거스리고 골히눈 부릅쓰고 봉 그린 투구의 농넉잡을 낚고 장팔스모를 들고 닥드르며 이놈 놀부야 네 세상의 너서 부모의게 불효하고 형제 불화홀 쏜더러 여러 가지 죄악이 만기로 턴되 무심치 아니호스 날 노 하여곰 너를 죽여 업시하라 호시기로 왔거니와 너갓튼 잔명을 독여 쓸티 업스니 디져견디여 보으라 호고 업포 갓튼 손으로 놀부를 흠쳐 잡으스 올고 헛간으로 드러가 호령호되 명석을 너여퍼라 하니 놀뷔 벌벌 썰며 명석을 퍼니 장비 벌거벗고 명석의 업디여 분부호되 (제24장, 38면)

(나) 쏘 집 우희 올나가보니 밧 혼 통이 이스되 빗치 누르고 불빛 갓튼지라 놀부 비위 동하여 싸 가지고 너려와 혼참 트드가 귀를 기우려 드르니 아모 소리 업고 전동니가 물신물신 맞치이거늘 놀뷔 호는 말이 이 박은 농 너어 썩어

15) 일반적으로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이라 하면 작품에 잠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거나 선택된 표현들의 지역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말하는 ‘비판적 문식성’은 박유진(2013)이 정리한 바와 같이, ‘고전소설에서 말하는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사유하는 능력’과 상통한다.

진 박이로다 하고 십분의 칠판분을 턴니 홀연 박 속으로셔 광풍이 디작하며 쫓들기 낙오는 쇼릭 산천이 진동하는지라 원집이 혼이 썩셔 드문 밧기로 나와 문틈으로 엿보니 되쫓 물지쫓 준쫓 마른쫓 여러 가지 쫓이 합하여 낙와 집우가지 썩히는지라 놀뵈 어이업서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이런 일도 쏘 잇는가 (제25장, 39면)

(다) 이러홀 둘 아라시면 동냥홀 박으지낙 가지고 나오더면 조홀 번흐다 하고 썩썩한 놈이 쳐즈를 잇글고 흥부를 츠즈가니라 (제25장, 39면)

(가)와 (나)는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박을 탄 놀부가 징치당하는 대목으로, (가)에서 놀부는 장비에게 죽음을 위협받고 있으며, (나)에서 놀부는 박 속에서 온갖 배설물들이 나와 집에 쌓이는 것을 목격한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경판 25장본 〈홍부전〉에서는 놀부의 박타기 대목, 즉 놀부의 징치 대목이 작품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우애보다는 권선징악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구술문화의 특성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권선징악’은 고전소설의 대표적인 가치관이기도 한데, 〈홍부전〉에는 이본에 따라 형제의 우애가 강조되는 것과 놀부의 징치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다룬 경판본 〈홍부전〉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작품은 고전소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판본 〈홍부전〉에서는 (다)와 같이 놀부의 성격이 변화하는 대목이 나타나는데, 놀부가 흥부를 찾아가는 것이 그러하다. 즉, 놀부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놀부의 개과천선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라) 만여 명 왈즈드리 나오되 누구누구 낙오던고 이득이 저득이 난득이 횡득이 모득이 보금이 족경이 거절이 군평이 털평이 툇평이 어숙이 무숙이 팻 겁질 나돌몽이 뉘여 부드치기 난경몽동이 아귀쇠 악착이 모로기 변통이 구변이 광면이 잣박과 미드니 썩썩이 든든이 우리 몽술이 으들놈이 휘모

라 나와 (제18장, 31면)

(마) 또 팻갓질이 풍죽운을 단다 만국병전 초몽풍 취적가성 낙원풍 일자홍도 낙
만풍 제갈량의 동남풍 어린 으희 만경풍 늙은 영감 번두풍 왜풍 광풍 청풍
낭풍 허드훈 풍죽 엇지 드 달니 (제19장, 32면)

한편, 경판본 <홍부전>에는 놀부의 징치를 통한 교훈의 전달보다 더하
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언어유희 등의 희극적 표현들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민중적 세계관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라)와 같이 놀부의 박에서 나
오는 만여 명의 왁짜¹⁶⁾들을 일컫는 다양한 별명들을 휘모리 장단으로 나열
하는 장면, (마)와 같이 시 구절을 말하다 어떠한 맥락 없이 ‘풍’자를 사용한
운자 달기 놀이를 하며 ‘무수한 -자로다’로 마무리하는 장면 등이 그러한
데, 이와 같은 장면들은 놀부의 심술을 징치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언어유희 자체에 목적이 있는 언어사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대
해 조용호(2001)는 ‘카니발적 특성’이라 일컬은 바 있으며, 흥미는 추구하되
복잡하고 공식적인 데에서 벗어나 가능한 단순하게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
을 보이는 그대로 이해하는 민중적인 사고의 특징이 드러난 것(조용호, 2001:
247)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언
어유희를 통해 장황하게 고유명사를 희화화하여 동원하는 것, 반복적으로
부조리한 언어를 나열하는 것, 수수께끼의 형식을 동원하는 것 등이 모두 민
중적 세계관에 입각한 언어의 카니발화(조용호, 2001: 247)라 주장하였다.

문화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앎(박인기, 2002), 고전소설 속에 나타난
문화를 습득하고 경험하는 능력(박유진, 2013)을 ‘문화적 문식성’이라 일컬
을 때, 판소리계 소설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이 담지된 구술성을 통해 강조되
는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 가치관과 언어유희를 통해 드러나는 민주적 세계

16) 서대석(1991)은 왁짜와 더불어 놀부의 박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양반과 장비를 제외하면
모두 하층민이라는 점에 주목한 바 있는데, 이 또한 민중적인 세계관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관은 ‘문화적 문식성’의 함양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그것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현재의 학습자들과 관계있는 수평적 차원의 것이 아닌 수직적인 차원의 전통 관념이지만, 독자가 판소리계 소설에 내재된 구술문화의 속성을 통해 전통적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판본에서는 우애보다는 권선징악이 강조되지만, 이본별로 강조되는 전통적 가치관들을 비교해본다면 학습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문화적 가치, 신념 등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판소리계 소설에 잠재하는 구술문화의 속성은 문화적 요소뿐만 아니라 작품의 전반에 반영되는 세계관을 포착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2) 생활 세계와 연관된 가치의 표현

이념적 차원보다 현실적 차원의 관념을 내포하는 <홍부전>의 특성은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판소리계 소설은 천상계의 이념에 따라, 운명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기존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초월적·종교적 세계관)의 고전소설과 달리, 판소리계 소설은 돈, 빈부, 가난 등의 현실적인 문제(일원론적 세계관, 세속적·물질적 세계관)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보다 생활 세계와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구술문화의 특성 과도 연관을 맺는다. 특히 <홍부전>은 <심청전>, <춘향전> 등의 판소리계 소설들보다도 돈과 빈부의 문제가 강조되어 있으며, 박지원 등 실용적인 차원에서 재물의 유통과 관련한 주제를 통해 당대 위정자의 무능과 허위를 꼬집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었던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한문 문학 작품과 달리, 백성들의 실제 삶과 직결된 돈·빈부·재물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차원의 세계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제재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판 25장본 <홍부전>의 구술성 양상과 이를 통해 함양 가능한 판소리계 소설의 문식성 층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구술성을 통해 함양 가능한 문식성 층위: 경관 25장본 〈흥부전〉의 경우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구술성 양상	주요 대목	구술성을 통해 함양 가능한 문식성 층위
표현	텍스트 자체적	유사한 어구의 반복 및 나열을 통한 장황한 서술	‘하기’ 동일 구조의 반복과 나열을 통한 놀부 심술 강조	-같은 맥락에서 특정 어구 및 구조의 반복은 나열되는 것들이 동일한 의미망 형성을 의미 -어휘의 의미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동일한 맥락을 형성하여 해당 어휘들의 사용 맥락 유추 가능 ⇒ 독자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는 ‘관습적 문식성’ 함양 가능 -특정 어휘나 어구의 반복은 단순히 어휘가 제시되는 맥락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인물이 처한 상황·성격·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 등을 복합적으로 드러냄 ⇒ 하나의 문식성에만 국한되지 않음
			‘-듯’ 동일 구조의 반복과 나열을 통한 아내의 기다림과 빈곤한 흥부 가족의 처지 부각	
			‘슬근슬근 툇질이야’ 동일 어구의 반복을 통한 흥부의 보상 강조	
			박 속 내용물 (똥, 장비 등)의 반복과 놀부의 재산 몰수를 통한 놀부의 처지 회화화	
표현	대비적 형용구를 통한 어휘의 의미 유추		‘놀부 심신’과 ‘어진 동심’의 대비적 형용구를 통한 흥부의 선함과 놀부의 악함 강조	-인물을 수식하는 정형화된 어휘 표현 → 인물을 묘사하는 각각의 어휘의 대응 → 어휘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도록 하는 비계로 작용 ⇒ 기능적 문식성
독자 지향적	말건넬을 통한 독자의 참여 활성화		‘놀부놈의 거동 보소’와 같은 독자의 관심 유발을 위한 말건넬의 어투와 독자와의 거리 축소	-구연 현장에서 화자가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관심을 유도하는 발화 → 판소리 공연에서 창자에 의해 행해지는 말 건넬의 어투와 유사 -이러한 장치는 독자의 시선을 서술자가 의도하는 곳으로 옮김으로써, 독자를 텍스트 내부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 ⇒ 태도 차원의 문식성
			‘무지하다, 뻔뻔하다’ (놀부)/‘엇지 아니 불상하리’(제비)/‘흉악하다’(뱀)	

사 고	전통적 가치관과 민중적 세계관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한 놀부의 정치 대목(놀부의 성격 변화)의 강조 -언어유희를 통한 희극화와 민중적 세계관의 표현 -문화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앎, 고전소설 속에 나타난 문화를 습득하고 경험하는 능력을 '문화적 문식성'이라 일컬을 때, 판소리계 소설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이 담지된 구술성을 통해 강조되는 전통적 가치관과 민중적 세계관은 '문화적 문식성'의 함양을 가능하게 함 -경판본에서는 우애보다는 권선징악이 강조되지만, 이본별로 강조되는 전통적 가치관들을 비교해본다면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문화적 가치, 신념 등을 습득할 수 있으며, 작품의 전반에 반영되는 세계관을 포착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음
	생활세계와 연관된 가치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소리계 소설은 천상계의 이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기존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초월적·종교적 세계관)의 고전소설들과 달리, 현실적인 문제(일원론적 세계관, 세속적·물질적 세계관)를 직접적으로 다룸 → 생활세계와 밀접한 가치를 표현하는 구술문화의 속성을 지님

IV.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을 위한 교육의 방향

1. 교육적 의의

먼저 판소리계 소설에서 구술성이 지닌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은 구술성을 통해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장르적 인식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구술성과 기록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갈래만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 특징이며,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다른 고전소설 장르와는 구분되는 판소리계 소설만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장에서 살펴보았듯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성의 양상은 표현적인 차원에서부터 사고·관념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고방식 혹은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둘째, 구술성은 판소리계 소설을 향유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문식성들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되는 어휘 및 어구가 제시되는 맥락을 통한 의미 파악(기능적 문식성), 구술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닌 판소리계 소설의 고유한 특징 파악(장르적 문식성), 편집자적 논평을 통한 서술자의 시각 유추 및 이본과의 검토를 통한 대상에 대한 관점 정립(비판적 문식성), 전통적 가치관 및 세계관 이해(문화적 문식성), 서술자와의 대화를 통한 텍스트로의 진입(태도·자발적 문식성)의 경우가 그러하다.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문식성의 함양은 궁극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통합적, 총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구술성을 통하여 묵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읽기 방식인 묵독은 읽기의 범위를 무한히 늘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독자의 부담을 증시시키도록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술성을 통한 작품 읽기는 반복되는 어구와 사물·행위의 나열, 대화체의 제시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의 읽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본적인 형식은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독자들은 반복되어 나열되는 다양한 예시 혹은 상황들을 통해 해당 대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판소리계 소설은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발화 등을 통해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장르이므로,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소설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2. 교육적 적용: 경판 25장본 <흥부전>을 중심으로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성을 활용한 교육이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구술성을 매개로 한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볼 수 있다.

첫째, 반복 및 대응되는 어휘들, 대비적 형용구들을 찾아 그 의미를 유추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휘 및 어구의 반복은 어

휘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즉, 어휘나 어구가 반복될 뿐, 기존의 고전소설 교육에서 주석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대신 어휘들은 ‘가난한 흥부의 상황’, ‘놀부의 행태’ 등과 같은 특정한 동일한 맥락 속에서 반복된다. 반복되는 어휘나 어구들의 의미는 상황 맥락 안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황 맥락이 독자로 하여금 어휘의 의미를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비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독자가 알지 못하는 어휘의 의미를 비슷한 상황 맥락 아래 선택된 다른 어휘들과 비교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할 때 동일한 상황 맥락 안에서 특정 대상 혹은 인물을 묘사하거나, 상황을 나타내는 정형화된 어휘 표현들을 추출하고, 어휘들 간의 의미를 유추해보는 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학습자가 어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휘들 간의 관계 파악을 통해 어휘의 의미 유추가 가능해지며, 판소리계 소설을 향유하기 위한 기능적 문식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동일한 구조의 정형구에 새로운 내용을 채워 보거나, 정형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현들을 만들어 본다. 학습자들에게 핵심 대목(놀부 심술 대목, 흥부 가난 대목, 박 타는 대목 등)을 반복되는 정형구를 중심으로 읽게 한 후, 추가적으로 자신만의 내용을 채워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놀부의 박타기 대목에서 학습자들이 하나의 박을 더 추가하고 동일한 정형구를 활용하여 그 박에서 나온 사물들을 그려보는 활동이 있을 것이다. 또한, 흥부의 가난한 처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정형구를 활용하여 학습자들만의 또 다른 표현들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거나, 놀부의 심술이 나타나는 행동들을 추가적으로 상상하여 놀부의 성격을 강조할 수 있도록 놀부의 행위를 극대화 및 희화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반복적인 어휘 혹은 어구, 정형구의 선택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체험해볼 수 있으며, 그러한 표현들을 선택한 작자의 의도 또한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작품에 나타난 편집자적 논평의 양상들을 다른 이본과의 비교를 통해 정리해보고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한다. 편집자적 논평은 인물 혹은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로, 직접적인 정서의 표출은 독자로 하여금 해당 시선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하고 작품에 참여시킨다. 편집자적 논평을 파악하는 것은 독자가 서술자의 시각과 유사한 관점으로 작품의 상황을 바라보거나 반대로 거리두기를 통해 비판적 문식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이본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편집자적 논평의 양상들을 살피고 그 가운데 자신의 관점을 선택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넷째, 구술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작품의 전통적 가치관 및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본별로 비중이 다르게 설정되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추출해 본다. 경판 25장본 <흥부전>에는 우애보다는 권선징악의 가치관과 언어유희를 통한 민중적 세계관이 강조되지만, 이본에 따라 강조되는 가치들은 상이하다. 권선징악의 가치관이 강조되는 이본에서는 놀부의 반성과 개과천선이 이루어지지만, 우애의 전통적 가치관이 강조되는 이본에서는 오히려 놀부의 부정적인 측면에 부각되면서 우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애가 어그러지는 양상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이본마다 다르게 형상화되는 다양한 전통적 가치들을 발견하는 활동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구술성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는 이본들임에도 문화적 사고,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탐구해 본다면, 학습자들이 판소리계 소설의 문화적 요소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비록 내용적인 면에서는 수직적인 차원의 전통 관념이지만, 방법적인 차원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판단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치의 일방적인 전달, 무비판적인 수용과 차별화된다.

다섯째, 구술성이 강조된 부분들을 실제 낭독을 통해 감상하고, 실제로 고전소설 향유 과정에 참여한다.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술적 장치들(‘놀부놈 거동 보소’),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 반복과 나열이 강조되는 대목,

대화체가 강조되는 대목,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는 대목 등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해당 대목을 직접 낭독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실제 판소리가 연행되던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목록을 통해서만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들은 노래하듯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고전소설 문식성에 대한 관점을 반성적으로 살피고, 현재까지의 논의들이 고전소설 문식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일직선상으로 단계화 및 절차화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전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의 관계를 절차가 아닌 통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 구술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고전소설의 하위 유형 가운데 판소리계 소설을 그 시작점으로 하여 논의의 단초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판소리계 소설 <홍부전>의 구술성 양상을 분석하여 판소리계 소설 향유에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고전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문식성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을 보다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으나, 본 논의는 판소리계 소설의 장르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전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20. 10. 31. 투고되었으며, 2020. 11. 16. 심사가 시작되어 2020. 12. 10. 심사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 김종철·이명찬·김종욱·양정호·황혜진·신중진·조하연·김소영·주재우·박소영·노수경·박재희·이주영·김민선·박수연·박인규(2015), 『중학교 국어 1-6』, 서울: 천재교육.
- 김종철·이명찬·양정호·김종욱·황혜진·신중진·조하연·주재우·임호원·박혜영·이진웅·부경일·서창현·이세영·조충민(2015), 『고등학교 국어 I』, 서울: 천재교육.
- 김종철·이명찬·양정호·김종욱·황혜진·신중진·조하연·주재우·임호원·박혜영·이진웅·정승철·설지현·이세영·서창현·정보미(2015), 『고등학교 국어 II』, 서울: 천재교육.
- 김중신·김성룡·김동환·장윤희·박진호·이목윤·박윤경(2015), 『고등학교 국어 I·II』, 서울: 교학사.
- 김진영·김현주·차충환·김동건·박현주 편저(2003), 『홍부전 전집 2』, 서울: 박이정.
- 문영진·김동준·김잔디·김현양·박수연·서형국·신두원·엄성신·이정훈(2015), 『고등학교 국어 I·II』, 서울: 창비.
- 박영목·정호웅·유현경·천경록·양기식·나윤·전은주·성난주·안순숙·박의용·임지은·백정운·신수정·남영민·이혜진(2015), 『중학교 국어 1-6』, 서울: 천재교육.
- 박영목·정호웅·천경록·양기식·이은경·나윤·전윤주·박형라·박의용·서우중·남영민·이혜진·하고운(2015), 『고등학교 국어 I·II』, 서울: 천재교육.
- 우한용·최병우·이은희·김혜영·이승철·박찬용·윤정환·김향연(2015), 『고등학교 국어 I·II』, 서울: 비상교육.

2. 논저

- 김종철(2001), 「신재효 <춘향가>에서 구술성의 실현 양상」, 『고전문학연구』 15, 5-30.
- 김창진(1991), 「홍부전의 이본과 구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1991), 「판소리 문학에서 구술성과 기술성의 관계형상 및 장르적 의미: <춘향가> 또는 <춘향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2, 127-159.
- 김혜진(2017),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명완·박영목·박인기·이관규·최인자·이형래·박수자·정혜승·이성영·이도영·이경화·손영애·이순영·이충우·이재승·박영민·이정숙·김선민·이수진·서수현(2008), 『문식성 교육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류수열(2018),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의 위계화 시론」, 『고전문학과 교육』 36, 5-31.
- 박유진(2013), 「고전소설 문식성 신장을 위한 고전소설 교재화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진(2015), 「국어교육의 목표로서 ‘문화적 문식성’ 개념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57, 133-168.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 연구』 16, 23-54.
- 배수찬(2011), 「고전 국문소설의 서술 원리 연구: 낭독이 서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대석(1991), 「홍부전의 민담적 고찰」, 구인환 편저, 『홍부전 연구』, 서울: 집문당.
- 서보영(2014),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학습자의 <춘향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3, 75-101.
- 서유경(2009), 「판소리를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판소리연구』 28, 171-196.
- 서종문(1984), 『판소리 사설 연구』, 파주: 형설출판사.
- 손향숙(2014),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영미문학교육』 18(1), 167-190.
- 엄은열(2001), 「고전교육의 문화론적 접근의 실태와 전망」, 『국제어문』 24, 1-10.
- 이상택·박희병·임치균·조광국·이주영·정병설·송성욱·류준경·이승복·이창현·서인석·조태영·김탁환(2005),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파주: 돌베개.
- 이유진(2014), 「문자문화 시대에 생성된 구술 텍스트: 판소리의 내향성에 관하여」, 『구비문학연구』 38, 65-88.
- 이재기(2009),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22, 115-158.
- 이현주(2013), 「판소리계 소설의 구술성과 장르적 속성에 대한 소고: 경관 <춘향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4, 113-143.
- 조용호(2001), 「<홍부전>의 카니발적 특성」, 『한국고전연구』 7, 230-259.
- 조희정(2004), 「고전 리터러시(Literacy)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구도-근대적 변화 양상의 검토를 통해」, 『한국교육학연구』 21, 121-155.
- 조희정(2006),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61-93.
- 조희정(2016),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어·문학 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2, 63-118.
- 조희정(2020),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문학교육학』 68, 227-260.
- 최혜진(2000),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서울: 역락.
- 판소리학회(2000), 『판소리의 세계』, 서울: 문학과지성사.
- 황윤정(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문학교육학』 66, 171-221.
- 황혜진(2005),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 변용물의 비교 연구: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116, 375-407.
- 황혜진(2007),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주제 비교」, 『고전소설과 서사론』, 서울: 월인.
- 황혜진(2016), 「고우영의 만화 <놀부전>의 서사 변용 양상과 홍부전의 수용 문화」, 『고전문학과 교육』 33, 5-44.

- Maybin, J. (2006), "The new literacy studies: context, intertextuality and discourse", In D. Barton & M. Hamilton (Eds.), *Situated Literacies: Reading and Writing in Context*, (2nd Ed.), London: Routledge.
- Barton, D. (2014), 『문식성: 문자 언어 생태학 개론』, 김영란·옥현진·서수현(역),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원서출판 2007).
- Finnegan, R. (1977), *Oral Poet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Freire, P & Macedo, D. (2014),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허준(역), 서울: 학이시습(원서출판 1987).
- Hirsh, E. D. (1988),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NY: Vintage Books.
- Ong, W. J. (2006),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역), 서울: 문예출판사(원서출판 1982).

구술성을 통한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의 통합적 함양 가능성 고찰 — 경판 25장본 〈홍부전〉을 중심으로

이지원

본 연구는 고전소설 문식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문식성을 위계화·단계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존의 시각을 보완하기 위해 고전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들은 통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기본 관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에 대하여 하나의 문식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 종합적인 이해와 비판으로 나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구술성이 판소리계 소설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문식성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월터 옹(Walter J. Ong)의 논의를 참고하여 구술적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경판 25장본 〈홍부전〉의 구술성의 양상을 표현(수사)과 사고(관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다양한 문식성의 층위와 연결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해보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을 즐겁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핵심어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문식성, 리터러시, 구술성, 통합적 함양, 〈홍부전〉

ABSTRACT

The Possibility of Integrated Growth of Literacy in The Pansori Novel through orality

Lee Jeewon

Based on the view that the various Literary qualities needed to enjoy classic novels are not one-sided but integrated, this study examined existing studies of classic novel Literacy, and clarified that existing studies have proceduralized the elements that compose classical novel Literacy. Accordingly, this study posited that an increase in Literacy in the pansori novel genre through orality would contribute to the integrated experience of the various Literacies needed to enjoy classic novels. The study analyzed *Heung-boo-Jeon*, a pansori novel with numerous oral characteristics, as per the discussions of Walter J. Ong, and connected its orality with various layers of Literacy, and also tried to apply it to the aspect of education. By developing Literacy in the genre of pansori novels through the study of orality, learners will be able to cultivate various Literary qualities needed to enjoy pansori novels in an integrated manner.

KEYWORDS Early-modern novel, pansori novel, literacy, orality, integrated growth, *Heung-boo-Jeon*